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원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1호 2013년 5월 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5월 가정의 달

건강한 설교, 알찬 프로그램 풍성한 하나님 은혜 경험!

가정사역전문단체, "가정의 달" 맞는 교회공동체 준비와 자세 소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고, 건강한 사회의 지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인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이민사회에서 이혼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정설교 준비와 가정의 달 행사준비를 위한 아이디어 빈곤이다. 따라서 이는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 및 행사 준비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그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6월 중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판례를 내놓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직까지 한인교회 강단에서는 들어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사회에서 교회내 이혼, 동성결혼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목회자들 또한 이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작 가정의 달에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교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포커스온더패밀리"나 "크리스천패런팅" 등 성경적 가정교육을 천명하는 가정사역 전문단체들에서는 먼저 가정의 달에 다뤄야 하는 주제들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설교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가족 섬김',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행복' 등으로 다양성과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설교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가정의 달 설교에 있어 특별한 주제보다는 포괄적인 정통 주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단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가정의 달 설교 주제로는 이혼가정, 동성애 가정, 싱글가정, 재혼가정, 동거가정, 기러기 가정에 대한 돌봄과 섬김이다. 이는 정상적인 가정 즉 초혼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정 형태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야 한다는 전통에서 아직은 자유롭게 설교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설교주제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내용으로는 "가족 섬김"이 가장 무난한 주제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행복, 부모역할, 봉사와 나눔, 아버지 권위 등이 제시된다.

또한 12학년 자녀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시점을 감안해 학자금 융자대출을 현명하게 사용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과 섬김을 주제로 하는 보편적 설교가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의 달을 맞아 교인들이 들어야 할 주제인 가정 문제는 강단에서 한두 번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성령강림주일에 겹치는 이유도 있지만, 5월 한 달 내내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황의영 목사(SBM 대표)

13면
투고 칼럼
최낙일 목사(동부장로교회)

16면
인터뷰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

적극적 참석 위한 동기를 제공하라!

스몰그룹닷컴, F. 맥브라이드의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실제적 원칙 소개

소그룹을 맡은 리더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멤버들이 소그룹에 잘 참석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각 멤버들이 소그룹에 잘 참석하도록 돕는 것은 소그룹 인도자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참석은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석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그룹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은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적극적인 소그룹 참석을 권한다

리더는 멤버들이 자신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말하지 않아도 멤버들이 참석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소그룹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는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멤버들은 리더와 같은 생각으로 소그룹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멤버들에게 그룹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일을 함께 하자고 분명하게 제안을 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책임감 갖고 동료의식 가져
소그룹 목적과 방향 제시하고 소속감 느끼도록

2.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 이외의 시간에 그룹 멤버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함께 커피를 마시든지 혹은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그룹의 진행 상황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물어 본다. 여러분이 각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라.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3. 멤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다.

그룹 전체가 당신을 비롯한 다른 멤버들과 늘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면 그룹 멤버의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 그룹 활동을 계획한다. 몇몇 멤버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예를 들면, 대표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그룹 일정표를 만들게 한다거나 서로에게 연락을 하게 한다거나 모임의 일부를 인도하게 하는 것도 좋다. 사진을 찍는 것을 담당하게 하거나 중보기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서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도 좋다. 자기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져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다.

4. 멤버들의 참석을 인정하고 칭찬한다.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지금까지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지속적으로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짧고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은 참석에 대한 의욕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

5. 소그룹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소그룹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고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멤버들이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소그룹 참석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 론

자기관리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백만장자의 마인드"(Thomas Stanley)란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마인드를 분석하여 30가지의 성공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30가지를 순위별로 열거하였는데 "4위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 것, 3위는 내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는 것, 2위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1위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인생의 성공실패는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뉴욕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시의원 뇌물수수혐의 체포"란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다. 내막인즉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이 공화당후보 뉴욕시 시장후보 공천권을 받기 위해 공화당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위장한 FBI수사관이 시의원에게 접근하여 "상원의원이 공천권을 확보하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 "모기지를 갚아달라, 뉴욕시경 부국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의원은 다선의원이 아닌 초선의원에 불과한 자로 선거를 치른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정치인생이 마감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공무원들, 연예인들, 운동선수 등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적 존재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부러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평생 쌓아올린 수고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서도 위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은 추락하여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지만 한때는 미국의 TV설교자로 쌍벽을 이루었던 스와거트(Jimmy Swaggart)와 베이커(Jim Baker)가 있었다. 이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아낌없이 첵크(헌금)를 끊어 보냈다. 지미 스와거트의 경우 당시 104개국에 78개의 채널, 3천개의 방송국을 통해 그의 설교가 방송되었고, 매년 수입된 헌금액이 1억불이 넘었다 한다.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다가 성 스캔들로 귀한 가족도 사역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차제에 우리도 "자기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질관리, 성(Sex)관리, 시간관리, 체력관리, 품격관리, 영성관리"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내 인생 사역에 발목을 잡을지...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할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독수리(솔개)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지만 70년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다. 40년이 되면 독수리의 부리는 너무 길게 자라 목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도 노화되어 무뎌지게 되어 먹이를 제대로 사냥할 수 없게 되며 깃털도 더러워지고 낡아 무거워서 날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40년쯤 되어 그대로 죽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늙어죽기를 거부한 독수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하면서 부리를 수없이 바위에 찍어, 결국 자기 부리가 다 깨져 없어지면 새부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부리로 오래된 깃털을 뽑아버리면 새롭고 가벼운 깃털이 생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독수리로 변화되어 이후에 30년을 더 생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변화, 관리의 과정이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한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랴!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변화, 자기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CT, 현대 크리스천이 회복해야할 3가지 전통 영성훈련 소개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하는 영성훈련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 삶이 돼야 한다. 따라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즉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전통적 영성 훈련 중 금식,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침묵이 미국인들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What Classic Spiritual Discipline Needs the Most Renewal Among American Christians?: Three leading Christians on growing in Christ).

1. 금식을 회복하라

(조나단 윌슨하트그로브, Jonathan Wilson-Hartgrove 목사는 룻바하우스의 공동창립자이며, "희망에 눈뜨다"(The Awakening of Hope: Why We Practice a Common Faith의 저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영적 훈련을 배울 때 분별력도 갖추게 된다. 시대가 다르니 훈련 방법도 달라야 한다. 장인의 작업실에서 배우는 도제처럼 우리는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오늘날 특히 유용한 방법 하나는 금식 훈련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갈망을 자주 표현한다.

첫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한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업무와 온라인상의 만남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홍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고독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한다.

둘째, 정의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아프리카의 소년병, 아시아의 성노예, 우리 동네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임을 알고 있다. 특히 1800년대 후반부터 정의는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돼왔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과 평화를 이루는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매순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값싼 위로와 즉각적인 만족감을 좇느라 힘을 소진한다. 우리의 진정한 욕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방해하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되살려내야 할 영성훈련이 금식이라고 확신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한 직후에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다. 금식이 주기도문만큼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일정 기간 함께 금식을 해서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시장기만 느껴도 간식거리에 손을 뻗는다. 이런 우리들이 과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5:6)라는 말씀에 나타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기부인은 매우 금욕적으로 보인다. 일단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힘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금식 훈련은 우리의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준다. 금식은 단순한 자기부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의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는 행위다. 철저한 침례교도 클래런스 조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금식(fasting)은 느림(slowing)의 반대말이다. 이 빠름은 곧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올림픽 출전 수영선수들이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몸의 털을 미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거추장스런 짐을 벗고 가끔은 식사도 포기한 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허락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세계를 향해 앞장서 달려 나가야 한다.

금식을 하면 진정한 잔칫상은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로 차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로시 데이가 늘 말했듯 "천국은 잔치이고 삶도 잔치다. 음식이 변치 않더라도 친교가 있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잠시 후 사라지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떡, 예수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침묵훈련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큰 성장 이룩
금식훈련은 참 갈망 깨닫고 공동체 축제 정성껏 준비하는 행위

2.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라

(앤 그레이엄 로츠, Anne Graham Lotz는 복음주의자이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

일상 업무의 중압감, 세계 위기에 관한 뉴스, 가정이나 일터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때문에 나는 불안할 때가 있다. 내 영혼은 짓눌려있고 부담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와 씨름하고, 중압감을 느꼈으며,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에 나는 힘을 얻는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나와 함께 쉬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시간을 내야 한다. 여러분도 나와 비슷하다면 짬을 낼 시간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길게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기도로 그 시간을 시작한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말씀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런 다음 성경을 펴서 한 장 전체가 아니라 몇 구절만 읽는다. 내 목적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마가복음 9:2같은 구절들을 읽었던 것 같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동성애가정' 성경적 가르침 어떻게...

가정사역전문단체, "가정의 달" 맞는 교회공동체 준비와 자세 소개

'가족섬김',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행복' 등 보편적 주제 선호
부모가 가정내 기독교교육 리더로 세워지도록 관심과 배려 있어야

〈1면에서 계속〉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라도 관련 설교가 이뤄지는 교회는 그나마 평균적인 교회이다. 그러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 지나면 가정에 대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 다시 일제히 침묵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포커스온더패밀리에 따르면 결국 강단에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점점 병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절기설교로서의 가정설교가 아닌 복음의 핵심적 주제로서 가정을 위한 설교가 회복돼야 한다.

특히 이혼율이 늘면서 싱글 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설교 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된다. 그만큼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전문 가정사역자에게 그 부분의 메시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외 가족 간에 겪게 될 심리적 이슈들-역기능, 분노, 자존감, 상처, 용서와 치유-은 강단보다는 교육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소위 기독교교육은 교회에서 모두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의 틀을 깨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정내 기독교 교육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아울러 교회는 부모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교육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교회교육 캠페인, 교회교육 자료 제공, 부모교육 세미나 및 기도회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라 온 가족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을 가정의 달에 맞는 주제들로 꾸며, 장년부를 비롯한 온 부서가 동일한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달 진행 형태로 사용돼왔던 '온가족 새벽기도, 가족야유회 등 특별 이벤트나 '유아부 놀이잔치 및 노년부 경로잔치 등 각 부서별 행사' 에서 벗어나 온 가정이 함께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김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특히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건전한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한 영화들을 보는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다. 즉 '소울 서퍼(Soul Suffer)', '커레이저스(Courageous)', '파이어 푸르프(Fire-proof), 그리고 '페이싱 더 자이안트(Facing The Giant)' 등이 한인교회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이다.

'소울 서퍼'는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13살 베다니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하와이 주 결선 서핑대회에 출전 1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기대주였던 베다니는 결선을 앞두고 친한 친구 알리사의 가족과 함께 서핑을 갔다가 상어의 공격으로 한 쪽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소울 서퍼는 이후 벌어지는 그녀의 극복 과정을 감동있게 그린 영화다.

'커레이저스'는 4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중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성, 아버지, 남편상을 제시하고 있다.

'파이어프루프'는 소방대장 케일럽 홀트는 불타는 빌딩 속에서는 사명감과 뜨거운 동료애로 구조작업에 임하는 유능한 대원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인 캐서린과의 불편하고 서먹한 관계로 고심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내 캐서린 역시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 결혼 7년 만에 마침내 둘이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자, 케일럽의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이라 부르는 40일간의 실험을 제안한다. 케일럽은 부부의 관계회복보다는 아버지를 위해 책에 나오는 일들을 실천해 보지만,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케일럽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서서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남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던 케일럽은 더 늦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에 돌입한다.

'페이싱 더 자이안트'는 두려움이라는 거인의 허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스포츠 영화이다.

결론으로 5월 들어 맞게 되는 '가정의 달'은 더 이상 이벤트적인 상징적인 사역이 아니라 실제 이민 사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동기와 도전을 교회는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수록 균열이 심해 붕괴 파산되기 직전과도 같은 결혼과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2면에서 계속〉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을 읽은 다음에는 거기 나오는 사건과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는다. 마가복음 9:2에서 몇 가지를 배웠다.

△엿새 후: 매주 한 번의 쉼을 암시하는 것 같다. △데리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것처럼 그분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몸에 밴 일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다. △따로: 예수님은 내가 그분에게만 전념하기 원하신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내가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은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내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일일이 나를 향한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보았다. 예를 들면,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낸 것은 언제였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마가복음 구절에는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담겨있다.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문화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쉴 때"다.

3. 침묵을 택하라

(달라스 윌라드, Dallas Willard는 "영성훈련"의 저자이며 USC 철학과 교수)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은 침묵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침묵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침묵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외면하는 이 세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다. 특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늘 현대의 소음에 갇혀있고, 끊임없이 빗발치는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침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는 소음이나 거슬리는 소리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 몸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몸과 우리가 끊임없이 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또 다른 침묵은 거슬리는 소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말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 말들에는 사랑이라는 깊은 영성이 빠져있다(고전13:1).

침묵 훈련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 소음과 말을 끊는 것이다. 그치지 않는 소음들을 피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기를 여지가 생긴다.

여러 방법으로 침묵을 훈련할 수 있다. 초보자들은 침묵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에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운좋게도 가족들의 성향이 서로 비슷하다면 집에서 침묵 훈련을 해도 좋다.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에서 함께하는 훈련은 효율적이고 보람도 있다. 침묵이 몸에 배고 침묵의 작용 방법을 알면 알수록 점차 주변 환경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물론 기도원이나 특별 행사에서 하듯이 좀 더 집중적인 침묵 훈련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침묵 훈련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함으로써 현실의 삶에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침묵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얻는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고 말한다. 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고 말한다. 아무리 애써도 그처럼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온전함에 가까운 사람은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지혜롭게 침묵 훈련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벧후3:18)에서 자라가기 위해 침묵을 비롯한 다른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특히 침묵 훈련은 많은 사람들을 "은혜와 지식" 안에서 크게 성장시켰다.

적극적 참석 위한 동기를 제공하라!

〈1면에서 계속〉

또한 소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제시하는 것은 멤버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멤버들 서로 간의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끈끈한 사랑과 소속감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멤버들 각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과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갈 필요가 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고 함께 해결해갈 때 멤버들의 사랑과 소속감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리더는 소그룹의 분위기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기도제목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멤버들이 소그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예배에만 참석하기보다 소그룹에 참석함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속감이 깊어지게 되어 있다. 리더들은 멤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석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소그룹으로 세워가길 바란다.

새성전 축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본 교회는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지으신 새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축하 행사를 마련 하였사오니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교민을 위한 탤런트 "허준호" 집사 간증의 밤
일시: 주후 2013년 5월 4일(토) 오후 7시
※ 1981년 본 교회 설립에 참여하신 (구)라성 빌라델비아 남선교회 회원 오시면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입당예배 및 감사음악회
(조용원, 조경화 교수)
일시: 주후 2013년 5월 5일(주일) 오후 4시

(알라스카)
장소: 열린문교회 새성전
8200 Briarwood St., Anchorage, AK 99518
TEL. (907) 344-6446, (907) 868-0691
Fax: (907) 344-3182, E-mail: kopc@hotmail.com
담임 유재일 목사 외 교우 일동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자기 주도 인생

오랜만에 고국을 찾으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터라 불과 4년만인데도 가는 곳마다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지하철 노선을 열심히 확인하며 다녔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노인들 등 각개각층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모두 전화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은 단지 0.01%에 지나기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며칠 전 읽은 신문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주도 인생은 어디서?'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김 모 기자가 쓴 일러스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유의 이름을 가지고 현세대의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빗대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부모의 입장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남들보다 일찍 뒤집는다던지, 옹알이를 빨리 시작한다던지 하면 천재처럼 여겨져서 시중에 파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천재급의 두뇌는 아니라는 자각을 하면서 한 단계 낮춰 '파스퇴를 우유'로 바꿔 먹인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서울대학 정도는 가겠지 라는 기대로 '서울우유'로 바꿔 먹인답니다.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고교를 입학하여 첫 시험을 치르면 서울우유마저도 턱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연세우유'로 갈아본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3 수험생이 되어 모의수능시험을 두어 번 치른 후에는 다시 다른 00우유로 아니면 최후에는 '저지방 우유'를 선택한답니다. '저지방 우유'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란 뜻이라 합니다. 대학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그린 유머랍니다.

고국은 아직도 대학진학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런 씁쓸한 유머도 생긴 것입니다.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도 안쓰럽지만 학교로 학원으로 다니며 삶에 대한 여유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기주도의 인생이 없는 아이들 삶을 많은 시간을 학교에 학원에 맡기는 생활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은 전철에 몸을 맡기고 학교로 가는 길은 지친 모습들입니다. 잠시나마 등굣길에 마음을 핸드폰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한 없이 슬퍼집니다. 밝고, 건강하게 활발한 모습을 기대했던 저의 잘못인지요?

어린 시절 생활계획표를 짜던 기억이 납니다. 커다란 둥근 원을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을 찍은 후 12조각정도로 나누어 아침에 일어나 칫솔질, 식사 등을 구분하고 학교가기, 방과 후 숙제하기 그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복습하기, 예습하기 등을 써넣은 후 잊지 않고 휴식시간을 중간 중간 넣어서 그렸습니다. 밤 9시에는 취침시간 그 다음은 꿈나라 순으로.... 그래도 스스로 학습을 할 줄 아는 과거와는 달리 학습계획표를 짜주는 가정방문형 업체에 '자기주도 학습지도사'라는 자격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본 지하철의 아이들은 마치 인형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손끝에 핸드폰을 들고 기계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주도가 없는 사람들의 생은 불행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을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만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마치 '좀비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실존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옆에, 앞에, 뒤에 누가 서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없는 싸늘함이 흐르는 전철 객실 안의 모습 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들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 쓸쓸해보였습니다. 중년들은 평생 모은 돈과 융자로 구입한 주택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경매로 넘겨야 하는 안타까움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은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경제 침체의 외부적 요인들도 우울하게 합니다. 80-90년대 활기차던 그 시절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이 고국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가슴이 저며 옵니다.

푸/른/초/장

김해근 목사
(온누리영광교회)

아이는 어떤 대상인가?

(잠언 1:7-9, 신명기 6:4-9)

세계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함은 물론 마약이나 성적이거나 상거래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딪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15조), 아이들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26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한 교육에 저해되거나 위험한 데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32조). 아이들에게도 해로운 마약을 만들고 하고 심지어는 판매되는 데까지 이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33조). 성적 학대는 물론 성과 관련된 활동에 아이들의 부모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 놓아야(방치) 할까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교육방법 혹은 세상의 시스템에 맡겨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신명기 6:4-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능력이 없는 아이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특별히 입시나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골프를 좀 칠 줄 아신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 골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필드에 거의 매일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비중을 골프 잘한다는 사람보다 더한 비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의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집에 있든지 길가든지 심지어는 잠 잘 때일지라도 거기에다가 몸 속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새기고 집구석 구석에도 말이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명령은 생명의 길입니다(잠6:23; 10:17).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잠12:1) 미련한 짓입니다(잠13:14). 이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잠15:5)이요,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잠5:33). 이 죽음을 '죽을까 하노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창2:17; 3:3).

세 번째, 자녀는 아이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한 어린아이를 잡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10).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2-14).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올 때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들떠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주인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요셉을 위해 축복하면서 유언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 곧 이스라엘, 하나님나라가 아닙니까?(창48:15-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아이들은 결코 작은,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버려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임을 고백했습니다(왕상3:7).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아이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주십니다. 그런 자를 작다 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지런히 배우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3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전 해병대 부 사령관,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3차 미주 춘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3년 4월 4일 ~ 6월 16일

약 력

- 1964 해군 사관학교 18기 졸업, 해병소위 임관
- 1966/1-68/1 월남전 참전(해병 청룡부대)
  월남 짜빈동 작전지휘 (중위)
  전 중대원 일계급 특진
  (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창조)
  충무무공훈장, 월남 엽송 무공훈장 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 1970/10 진해 가덕도 침투간첩 소탕작전 수행
- 1984/8-86/1 해병 2사단 5연대장(대령)
- 1990/1-91/1 해병 제2훈련 단장(준장)
- 1991/1-93/12 해병대 부사령관 (소장)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목원대학교 교수
- 국내외 3900여회 성회 인도

강 사 : **김기홍 장로**

제33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 역
4/4(목) ~ 4/7(주일)	나성 제일 교회	김광삼	CA
4/11(목) ~ 4/14(주일)	한마음 교회	심상래	CA
4/18(목) ~ 4/21(주일)	세상의 빛 교회	이종윤	CA
4/25(목) ~ 4/28(주일)	오렌지 힐스 교회	전모세	CA
5/3(금)	주님세운 교회	박성규	CA
5/5(주일)	팜스프링 장로 교회	박노아	CA
5/9(목) ~ 5/12(주일)	뉴욕 할렐루야 교회	한기술	NY
5/16(목)~ 5/19(주일)	뉴욕 샘물장로 교회 외 4개 교회 연합	현영갑	NY
5/23(목)~ 5/26(주일)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강학구	PA
5/30(목)~ 6/2(주일)	한마음교회	이윤재	VA
6/6(목)~ 6/9(주일)	올네이 선스 교회	홍원기	VA
6/15(토)~6/16(주일)	경향가든 교회	한태일	MD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는 (02)842-3313로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간증성회문의처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Assembly) 1266 통과

공립학교는 영적 전쟁터...성정체성 구분 않는 프로그램 행사 허용
통과 눈앞 SB323 법안은 유스/비영리 단체에 세금혜택 주지 않아

지금은 다음세대가 당한 영적 전쟁을 위해 뜨거운 중보 기도가 절실한 때이며 크리스천들의 목소리(VOICE)를 높일 때입니다!

AB(Assembly) 1266이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교육청과 의원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 남녀 상관없이 성(남여) 정체성을 가려야 할 프로그램과 행사들과 그룹 활동들안에서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행사나 프로그램,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남녀 따로 하던 운동종목들(예: 레슬링, 권투 등)까지도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해 들어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 교사나, 카운슬러, 학교 측에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저지해서도 안되고 받아줘야만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무로 새롭게 수정된 법안입니다(아래 참조).

프로그램, 활동, 운동 종목뿐 아니라 남녀 시설까지도 함께 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따로 쓰던 운동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등이 그 예입니다.

SECTION 1

(f)A pupil shall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sex-segregated school programs, activities, and facilities, including athletic teams and competitions, consistent with his or her gender identity, irrespective of the gender listed on the pupil's records.

AB 1266(Assembly Bill)을 개시하고 제출한 사람들의 정체와 목적

그동안 SB48(동성애/성전환자/양성애를 긍정적으로만 교과서에 넣게 만든 법안) 법안 때문에 자주 들은 이름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 의원인 Tom Ammiano와 SB48 법안을 만들어 동성애 교과서를 만들게 한 Mark Leno 그리고 Ricardo Lara 상원의원들이 이 황당한 발의안을 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정치인들끼리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Harvey Milk 가 샌프란시스코의 최초 동성애 운동을 펼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와 미국 전역까지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동성애 운동을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발의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녀들에게 아무 해를 안끼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이미 성전환을 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나쁜 영향을 끼칠 일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발의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의안은 성전환자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남녀 학생들에게 남녀 구분없이 모든 학교 생활과 모든 장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전환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전환자 학생들만을 위한 것임을 발의안에서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전체 학생들 중에서 성전환 한 학생들은 극히 매우 소수이지요. 또한 성전환을 한 학생들도 역시, "여자" "남자" 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에 성전환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지 못한 것이지요.

또한, SB323 법안이 거의 통과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유스(Youth) 단체와 비영리단체(Non-Profit.org)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생긴 법안입니다. 또 이 법안은 너무나도 확연히 기독교 단체들과 특별히 기독교 유스 단체들을 핍박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일 ACTION TO TAKE: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학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마치 어린양을 늑대소굴에 보낸다는 심정으로 보내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내 자녀, 남의 자녀 상관없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받은 주님의 군사들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공립학교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학생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로 성정체성에 혼돈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말씀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근거로 양육하여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문화' 만들기,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집중-예수님의 세대 만들기!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보호단체)는 교회와 가정에서 크리스천 학교, 크리스천 홈스쿨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1.5세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쉬지 않고 목회자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좀 지쳐있어 목회자로 사역과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요?
-벨리에서 Kim

A: 목회자들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카고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3가지 계기판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계기판(Physcial gadget)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계기판(Spiritual gadget)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적 계기판(Emotional gadget)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상태는 매일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며 영적인 상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휴식을 영어로는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recreation은 Re와 creation이 합쳐진 말로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다보면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쉽게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때의 휴식은 새로운 창조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하여 죽기를 원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두려워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비를 내리는 등 큰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여자가 두려워 숨게 되고 죽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고 피곤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실컷 잠을 자게 한 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먼저 휴식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정서는 쉬는 것과 노는 것의 혼동하여 쉬는 것을 죄악시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휴식 문화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쉰다는 것은 Divers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려간다면 같은 종류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Diversion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 이것도 Diversion이 됩니다. 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이나 목적을 위해 계속하던 일을 접어두고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사역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모양의 갈등과 긴장,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사명감에서도 그렇고 교회성장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쉼과 휴가는 목회와 교회위해 필요

목회자들의 건강이 쉽게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과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설교를 준비하는 일 하나 만으로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많은 정신적 부담을 가지는데 교회성장에 대한 심적 부담, 그 외에도 당회운영 및 행정, 인간관리 등 무거운 정신적 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비난하기를 즐기는 못 말리는 교인들의 비판을 받고 눈치까지 받기에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두렵고 주눅이 들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국은 병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쉼과 휴가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와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13-May 17 (5월 13- 5월17일)
IM 815 Mission Strategy (선교전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Julien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Marc Wooter

May 20-May 24 (5월 20 - 5월 24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effrey A. Gill

졸 업 식
(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오전 9시
장소: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Orthopaedic Capital Center

Off-Campus Courses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Dr. Ken Bickel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죄책감은 버리고 영적 부담은 가지자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죄책감(罪責感, Guilty Conscience)은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죄에 대한 責任)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죄책감은 내면으로 향한 적개심이며,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죄 문제의 해결도 자신이 하겠다는 병적인 심리현상이다. 이 같은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면 미칠 것 같고 나 자신이 형편없게 보이기도 하고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죽어버리면 이 감정에서 자유스러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게 된다. 죄책감이 지속되다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를 더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부적응 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 결혼파탄에 이르게 되며 약물남용에 빠지고 정신병에 이르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로 생을 끝마치기도 한다.

"내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리라!" "내가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리라!"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으리라!" "내가 이제부터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주일성수를 하리라!" "내가 이제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 실천하며 살리라!" 등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교회가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더 심해지고, 난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등의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며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게 한다. 죄책감이 심하면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요16:7-13), 그리스도인에게 죄의식을 주시는 것은 죄책감으로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죄책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죄의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죄책감은 우울증과 절망을 일으키지만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죄책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버려야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식은 가져야 하고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부담(負擔,Burdens)이다. 많은 현대 교인들은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영적인 부담도 없이 나태와 무사안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한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묻혀 교회출석, 십일조, 주일성수, 헌신과 봉사 등을 어느 누구의 간섭과 부담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의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롬13:8)고 했다. '사랑의 빚'이란 '결코 갚을 수 없는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사랑의 빚을 갚게 된다.

또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1:14-15)고 말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대회심한 후 복음에 빚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이 기쁜소식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삼상12:23)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기도에 빚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 자, 마음에 상처입은 자, 버림받은 자,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므로 기도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영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비하, 열등감, 두려움, 수치심 등에 휩싸여 낙담 절망하며 디프레스 우울증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죄책감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죄의식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며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기도와 용서의 빚진 자로서의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 가톨릭신자 12억 돌파...한국 522만명

세계 가톨릭 신자가 12억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한국 신자는 52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황청이 최근 펴낸 '교회 통계연감'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가톨릭 신자가 12억1천359만1천 명으로 파악됐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4일 밝혔다. 이는 세계 인구의 17.5%로, 2010년보다 1천792만 명 늘어난 것이다.

나라별 신자 수는 브라질(1억6천478만명)이 가장 많았고, 멕시코(1억44만6천명), 필리핀(7천890만명), 미국(7천53만6천명), 이탈리아(5천783만4천명) 순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배출한 아르헨티나는 3천801만6천 명으로 열 번째로 신자가 많았다. 한국은 522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5천 명 늘었지만 순위는 2단계 떨어진 47위를 기록했다.

대륙별 신자 수는 아메리카 5억9천231만 명, 유럽 2억8천574만6천명, 아프리카 1억9천366만7천명, 아시아 1억3천223만8천명, 오세아니아 963만명이다. 대륙별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은 아메리카 63.1%, 유럽 39.9%, 오세아니아 26.1%, 아프리카 18.6%였으며, 아시아는 3.1%로 가장 낮았다.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5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할 때는 7.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대륙별 증가율은 아프리카 22.3%, 아시아 11.6%, 오세아니아 9.1%, 아메리카 5.2%, 유럽 1.3%였다.

무슬림형제단 시리아 조직 재건에 '긴장'

시리아 반정부 진영에 참여하는 아랍권 최대 이슬람 조직 무슬림형제단이 시리아 내에서 조직 재건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시리아 야권 내 세속주의·자유주의 분파는 종교 색이 강한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망명 중인 시리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리야드 알 샤크파는 터키 이스탄불 소재 사무실에서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조직 재건 결정을 밝혔다. 그는 또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내 지역에 사무실을 열기로 하고 조직원들에게 개설 작업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샤크파는 "(내전) 초기에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보다 혁명에 힘써야 한다고 봤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집단이 나타나는 만큼 이제는 우리도 조직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최근 시리아 내에서 격주간지 발행도 시작했다. 반군 점령 지역에서 1만여 부 가량을 발행한다. 무슬림형제단은 시리아 내에서 지난 1963년 이래 활동이 금지됐다.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의 부친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1982년 하마 시에서 무슬림형제단이 봉기를 일으키자 무력 진압을 감행, 2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초기 연합체인 시리아국가위원회(SNC)에 참여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리아 야권 일각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과도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분열 상태인 야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시리아 임시정부 총리로 선출된 가산 히토(50)도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더욱 광범위한 단일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SNCORF)을 결성한 것도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크파는 자신들이 야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은 '외세'의 지원을 받는 측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시리아 땅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며 "그들은 미디어 상의 얼굴마담일 뿐이고,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대원 경찰습격 25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급진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보이는 무장대원들이 경찰서와 은행을 습격해 경찰관 5명 등 25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 간부가 26일 전했다.

나이지리아 요베주 경찰청장인 사누시 루파이는 25일 무장대원들이 가슈아 마을의 경찰서와 은행을 습격해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경찰관 5명과 무장대원 20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무장대원들이 은행에서 약 6만달러를 강탈했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 사탄 논란의 발자취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사탄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 등이 등장한다는소문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젠틀맨은 유튜브 일일 조회수가3 천만 건이 넘어서는 등 일일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데 이어, 전체 조회수가 2억건이 넘는 등 전작인 강남스타일에 이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싸이의 젠틀맨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싸이를 '악마,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젠틀맨 영상의 특정한 부분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재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사탄을 상징하는 여러 형상과 문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첫 화면에 나오는 네 명의 노신사들을 영어로 하면 올드 젠틀맨(old gemtlema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악마'라는 뜻이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사탄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싸이가 이 네 명의 노신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또 싸이의 신곡 발매일이었던 2013년 4월 12일을 2+0+1+3+4+1+2 이런 식으로 더할 경우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 역시 사탄인 루시퍼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체크판 문양, 별,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 등이 모두 사탄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주장한다. 싸이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 강남스타일에 나오는 말춤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부르는 4명의 기수가 오기를 기원하는 춤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대중문화를 선택했고, 싸이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도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기독교계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해 레이디가가 방한 공연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녀의 공연을 반대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레이디가가의 노래 중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가사가 들어 있고, 앨범에 악마를 상징하는 섬뜩한 얼굴이 나오는 등 레이디가가가 사탄 숭배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소강석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른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성소권
352면 / 12,000원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Hear, O Israel" –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성경 본문에서 강조되는 교육원리인 이론과 실제 소개
족장시대-성막-성전-회당으로 이어지는 신앙전통 고수

성경과 기독교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유서 깊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주관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로 모인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한 장영춘 목사님과 진행을 위해 수고한 스탭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미나와 더불어 성지(Holy Land) 여러 지역을 탐사(探査)하는 스케줄이 빼곡히 짜여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내용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윗의 왕도로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역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함과 동시에 복음전파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지를 둘러보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 시각(視角 visual angle)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보다 입체적(立體的 three dimensional)으로 보여서 말씀이 동사화(動詞化)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교육목회의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면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라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교육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유대인 교육(shema)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독특한 신앙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선민(選民 chosen people)사상과 더불어 구원자를 희망하는 메시안 이즘(Jewish Messianism), 그리고 참으로 응집력이 강한 영적인 구심점(Zionism)을 수립하고 이를 변함없이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야무지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대적인 사명으로 알아 값진 교육전통을 세워나갑시다. 우리가 굳이 이곳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목적과 위의 주제를 정한 장영춘 목사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강의내용도 당연히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 로마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만 명이 항거하다가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패망한 지 1900년이 지나도록 흩어져 살던 유대인(diaspora)들은 특별한 신앙(우리와 믿음의 본질이 다르지만)과 고유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특출하였는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Nazi)의 지도자 한 사람인 아돌프 아히히만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역사의 장면들을 기념한 추모관(Yad Vashem)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힘을 모아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토(故土)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대한민국)와 함께 UN의 승인아래 이스라엘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웠습니다. 나아가 1967년에는 6일 전쟁을 통해 주변의 2억 명(아랍인들)과 맞서 싸워 단시일 내에 남쪽으로 시나이반도를, 북쪽으로는 갈릴리바다의 수원지(水源池)인 헐몬산을 포함한 골란고원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해바다를, 사방으로 드넓은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창13:14, 15)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7족을 쫓아내고 열두 지파에게 분배했듯이, 2000년간이나 그 지역을 차지해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메마르고 황막하던 산과 계곡들을 울창한 숲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현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밖으로 인류역사를 빛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다르기에 출중한 인물들을 배출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였을까요? 거기에 필경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자녀교육에 그 요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유구한 역사와 교육전통을 수립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계승한 데 있습니다. 그 배경과 실상을 고찰하며 핵심내용을 터득합시다. 아울러 이를 거울삼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시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에 신앙의 맥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합시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교육전통을 두 가지 측면과 관점에서 살펴보며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A. 성경적인 관점

1. 본문에서 강조되는 교육원리-이론과 실제

본문(신6:4-9)의 핵심내용과 교육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4).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대상을 확립하고 구심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2)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3)말씀을 마음에 새기라(6). 신앙생활의 기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이루게 합니다.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라(7-9). 단지 이론(지식)으로만 깨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생활현장은 곧 말씀의 실습장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음악목회 ⑸

찬양의 주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예배음악에 있어 회중찬송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중찬송이 지난 20년 사이에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왔습니다. 물론 예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은 주일예배에서도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성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배찬양으로 불려지고 있는 복음성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진 가스펠송(Gospel Song)과 한국적인 복음성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스펠송은 주로 가사를 성경에서 발췌하여 그 위에 곡을 붙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적인 복음성가는 개인적인 신앙고백과 간증적인 내용의 가사에 곡을 붙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복음성가는 대중가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의 생활 속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라디오나 TV를 통해 들리는 것은 가요뿐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는 아주 깊숙이 가요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 문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오락이 가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요풍의 복음성가가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가요란 무엇인가? 내용으로 보면 표현이 직설적이고 주로 사랑과 이별 또는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등으로 되어있는데 한 많은 한국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며 음악적으로는 리듬꼴이 단순하고 멜로디는 주로 반복하기 때문에 두세 번만 들으면 그냥 따라서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일생을 이러한 가요에 입맛이 들어있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대중가요풍의 복음성가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멜로디와 기타 반주로 흥을 더해주는 리듬이 그리 싫지 않으며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가끔은 신도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져 은혜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도 동기도 과정도 목적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지켜져 왔으며 이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온 신앙의 선조들의 절제와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어떠하던지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교인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흥미에 맞추어주는 것입니까?

한 번은 크리스천 록그룹 리더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형제여! 이 복음성가를 드럼과 전기기타와 재즈용 전자올갠을 사용하지 않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는 한 마디로 말하기를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재미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재미를 위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흥분과 도취에 빠지게 되고 실체의 자신이 아닌 극적 인물로 변하여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가 진실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 앞에 직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도 교인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람중심의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본질상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찬양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회에 혁명을 일으켜라!"
'목회자의 날'(6월 5일) 기념 초교파
www.kcdc.net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목회가 힘드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십니까?
목회에 더 큰힘을 얻고 싶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등록비 식사 무료
2013. 6. 3(월) – 6(목) 수원흰돌산수양관
<초청강사>
고 훈 목사, 김항안 목사, 이경은 목사, 정인수 목사
경품 행사
소형차 3대 최신형 노트북 인쇄기 외 다수
주강사 | 윤석전 목사
등록 필수 : 전화(☎1566-3004)를 통하여 등록 (선착순 5000명)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타 홈페이지(www.kcdc.net)를 통해 등록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안행 버스(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최 : 한국교회정보센타 ■ 문의 : Tel. 1566-3004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02-2680-0001 ■ 수원흰돌산수양관 Tel. 031-227-3111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4.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2)방사성 탄소

"미 석탄시료은행 석탄, 30-10억년전 생성 다이아몬드서도 방사성탄소 발견" ...10만년 넘으면 방사선탄소 안 나와

"지구의 나이 6천년, 무신론자에겐 조롱거리". 어느 크리스천신문의 기사제목인데 창조과학자들은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지구 나이가 6천여 년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만한 말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롱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의 입에서도 나온다. 지구 나이가 46억년 되었다는 증거는 정말로 있을까? 지구가 나이가 수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정말로 없을까?

성경이 말하는 6천여 년을 믿지 않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연대측정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우라늄과 탄소 동위원소일 것이다. 그러나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원소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암석 연대측정에는 우라늄(U), 토륨(Th), 납(Pb), 스트론튬(Sr), 칼륨(K) 등이 사용되고 생명체의 연대측정에는 탄소(C) 14-질소(N) 14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모래시계가 1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지만 원리가 동일하듯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들의 원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

여기서는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년이라는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연구를 위한 연대측정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일반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세상 과학자들의 학회(American Geophysics Union, 2003년 12월)에 심사를 거쳐 발표되었다.

1.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의 원리와 가정들

대부분의 탄소는 질량이 12인데 질량이 14인 탄소(C-14)가 있다. 이 탄소14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인 질소14로 변해간다. (1)이 변화속도는 아주 느린데 현재의 탄소14 절반이 질소14로 변하는 데는 약 5730년이 걸린다. (2)현재 공기와 모든 생명체들에 들어있는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1조:1이다. (3)생명체가 죽으면 생체 속에 들어 있던 탄소14가 기체질소14로 변하여 없어지므로 죽은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탄소14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4)따라서 연대를 알고 싶은 유기물인 화석이나 석탄, 혹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등은 방사성 탄소법으로 측정 가능한 물질들이다. (4)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이 너무 낮아지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론상 10만년 실제적으로는 6만년 이상이 되면 오차가 너무 커 탄소동위원소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5)생명체가 죽을 당시 혹은 다이아몬드가 생성된 당시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반드시 현재와 같은 1조:1이어야만 한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 할 때만 이 연대측정 결과를 정확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그렇지 못하다.

2. 석탄의 나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미국 에너지부 석탄시료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10개의 석탄을 골라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을 하였다. 그 석탄들은 진화론적인 연대로 고생대에 해당하는 석탄 4개(3억1800만년-2억 9900만년전), 중생대 석탄 3개(1억4500만년-6500만년전), 신생대 석탄 3개(5500만년-3400만년전)였다.

분석결과 모든 석탄들은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있었다. 방사성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이론에 의하면 죽은 지 10만년 이상 된 생물체에는 방사성탄소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역사가 사실이라면 이 석탄들은 모두 다 10만년이 넘은 것이므로 방사성탄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탄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석탄들은 10만 년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석탄의 방사성탄소는 진화론적인 연대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석탄 속의 방사성탄소비율이 진화론적인 지질연대(6억년, 1억년, 3000만년)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이 사실은 진화론에서 3억년이라고 주장하는 고생대나, 1억년이라고 주장하는 중생대나, 3000만년전이라고 주장하는 신생대가 다 같은 어느 한 시점이란 말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데이터와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을 통하여 그 시점이 BC2350여년전에 있었던 노아홍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도 확인하는 성경의 역사

세상 과학자들이 가장 믿을만하다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석탄, 석유, 화석, 대리석 등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체들의 나이는 6000년 미만이다.

3. 다이아몬드의 나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나 그 어떤 화석을 측정하든지 모든 생명체들 속에는 상당한 양의 방사성탄소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10만년이 넘는 생명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세상 과학자들은 측정하는 물체가 오염되어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변명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1984년-1998년 동안 과학자들이 발표한 탄소동위원소 분석보고가 70가지였는데 모두 다 오염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측정할 것도 역시 오염될 것이므로 결국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염 가능성 문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 탄소결합이 너무 강하여 극심한 조건으로 세척을 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따라서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샘플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30억년-10억년전에 생성 되었다는 다이아몬드에서도 방사성탄소가 발견되었다. 또, 그 양을 계산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하면 약 6000년이 나온다(이 보정방법은 지구의 자기장과 관계있는데 추후에 소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데이터들은 과학자들의 비평을 거쳐 일반 학회에 발표가 되었다.

4. 성경의 믿음은 수천년의 믿음

성경에는 수천년의 지구역사를 직접 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수십억 년을 믿을 수 있다고 둘러대는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역시 3위 하나님만 계신다고 언급하는 구절도 없다. 하나님은 세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4위도 계시고 5위도 계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여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다는 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만으로 판단하면 지구 역사도 수천년이 확실하다.

방사성 동위원소법을 비롯하여 긴 시간은 모두 다 성경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 장구한 시간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결정들일 뿐이다. 창조과학자들은 그 믿음이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거부하고, 대신 성경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방사성탄소의 예를 보아도 성경의 역사는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건 죽은 생명체건 혹은 무생물이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으로 55,000년(보정하면 6,000년)보다 오래된 것은 없다. 과학에 속아서 혹은 세상의 조롱이 무서워 성경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치명적인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성경이 무신론자들에게 조롱받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아니다(벧후3장).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감사의 성품으로 찾아가는 행복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이 특징이지요. 행복을 느낄 때 동반되는 정서기능은 즐거움, 사랑, 희망, 감사 등의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반면 분노, 공포, 따위의 부정적인 정서도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당히 부정적인 정서가 때로는 인류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적과 싸울 준비를 하게하고, 공포는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동물보다 가끔 맹수의 공격을 받게 한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은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인지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확장 및 구축이라는 이론에 의해,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개선된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일시적인 긍정적인 정서 때문에 인자능력이 확장되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더 오랫동안 구축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 인지능력이 확장되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대지진으로 인해 환란을 겪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진 시민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 "수돗물이 끊겼지만 우리 마을에는 지하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세계가 큰 감동을 느꼈지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또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지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며 행복을 선택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또 다른 성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요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전4:4)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한국 교회속에 뒤틀린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복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거짓 부흥을 사모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이비 성령론과 무속적 신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빠지고 있다"

진실된 성령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이중통역기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쎄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정장양복

기념패
헌금봉투
주보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강대상 ◐강대상 ◐헌금함

미 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첼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첼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업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남품업체 선정
이동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순금(1기둥당 1돈중)
상단전체 무광처리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낱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m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남가주 신학교/기독대 2013년도 봄학기 졸업식

아주사퍼시픽대 시작, 베데스다대까지 일정발표

남가주지역에 위치한 각 기독교대학교와 신학교들의 2013년도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아주사퍼시픽대학교를 시작으로 6월까지 잇따라 거행된다. 다음은 2012년 남가주 대학들의 봄학기 학위수여식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학교	일시	문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	5월 4일(토)	(626)857-2200, (866)491-9083
매스터스신학교(총장 존 맥아더 박사)	5월 12일(주일)	(818)782-6488
미주개혁신학교(총장 제인 박 박사)	5월 18일(토)	(213)736-6500
에반겔리아 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5월 18일(토)	(714)527-0691
호프인터네셔널 대학교(총장 존 데리 박사)	5월 18일(토)	(714)879-3901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리 캠밸 박사)	5월 21일(화)	(909)447-2502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베리 코리 박사)	5월 24일(토)	(562)903-6000
국제개혁대학교(총장 박헌성 박사)	5월 25일(토)	(213)381-0081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6월 1일(토)	(323)643-0301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6월 1일(토)	(562)926-1023
쉐퍼드대학교(총장 이성연 박사)	6월 1일(토)	(323)550-8888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로버트 갓프리 박사)	6월 1일(토)	(888)480-8474, (760)480-8474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월 1일(토)	(213)388-1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6월 3일(월)	(714)525-0088
ITS(총장 멜 룩스 박사)	6월 8일(토)	(626)448-0023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	6월 15일(토)	626-584-5651, 584-5574
미주감신대학교(총장 한기형 박사)	6월 17일(월)	(213)386-0080
베데스다대학교(총장대행 임동환 박사)	6월 22일(토)	800-960-4583

"하나님나라로 변환, 기독교 문명 일으킨다"

제27회 성결포럼, 북한선교 새 패러다임 제시

제27회 성결포럼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7회 성결포럼이 '북한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미주성결대학 채플실에서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이우용 박사(NAFEC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북한선교에 대해 나눴다.

이우용 박사는 북한선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북한선교를 위해서 국제개발선교이론이 필요하다며 이는 북한사회를 보다 향상된 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교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국제개발선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속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선교란 결국 북한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설명하고 이 변환을 통해 북한에 기독교적 문명을 일으키는 사역"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기독교 문명을 북한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전도와 국제개발을 통해 기존의 북한문명사관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발견이 하나님나라 패러다임이다. 북한에서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이 발견되게 하는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국제개발 수단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찬에 나선 정용갑 박사는 "북한선교는 낮은 자세와 섬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우용 박사의 내재하는 동질조직체 활용, 패러다임 변환이론이란 북한선교 접근방법에 동감한다고 말하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약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NAFEC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쌀'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약함의 선교다.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모든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떠나 하나로 묶는 공유점"이라고 말했다.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황의정 박사의 사회로 열렸으며 발제와 논찬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은 후 NAFEC의 이윤경 실장이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영양쌀 보내기, 어린이 이불 보내기, 사탕캠페인, 그리고 최근 시행중인 콩 종자(Soybeen Seed) 보내기 운동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NAFEC은 북한의 고아들과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식량, 의복,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미얀마에 교회와 병원을 건축하며, 한국의 현지인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선교단체로서 미국의 비영리재단이다.

〈박준호 기자〉

KIM선교회, 2013 리쉬마 비전트립 개최

7월 9-17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 유대교육현장 탐방

KIM선교회(Korean Israel Mission)가 주최하는 2013 KIM 리쉬마비전트립(LishmahVision Trip: LVT)이 오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리쉬마 비전트립은 21세기 꿈을 여는 교육을 위한 이스라엘 성지순례 및 유대인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테마여행이다. 리쉬마(Lishmah)라는 의미는 '토라를 위한'(For the sake of the Torah)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대인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이다.

킴선교회는 이러한 유대인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리쉬마 비전트립(LVT)을 준비했다.

LVT는 성지순례는 물론 유대교육현장인 예루살렘, 헤브론, 갈릴리의 예쉬바와 회당 유대인 학교 등을 방문하게 되며 유대인교육 전문가들과 히브리대학의 유대인교육 교수들의 특강 및 비전토론회를 갖게 된다. 또 메시아닉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메시아닉 사역자와 만남 및 이스라엘 성서공회 등을 방문하게 된다.

KIM선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성실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의 사역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종교, 문화적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돕게 된다.

이 비전트립은 유대인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환영한다.

강사로는 허정문 목사(히브리대 유대-기독교비교종교학 박사준비과정), 하이 바할룸(히브리대 B.A과정)과 특별 강사로 쯔비베커만 교수(히브리대 유대인교육 멜튼센터 학장), 바룩슈바르츠(히브리대학 수학자, 하브루타교육전문가), 호렌치크 가브리엘 교수(히브리대학 유대인교육 심리학자)를 비롯해 한국 교육학교수 및 메시아닉 사역자들이 강의를 맡는다.

비전트립 경비는 한국에서 올 경우 380만원이며 해외 참여자들은 1,600달러(항공료 별도). 자세한 것은 ddazii@hanmail.net/ddazii@gam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정신건강 특별세미나

"행복한 노년" 주제로 치매, 우울증 등 강의

한인가정상담소는 정신건강 특별세미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애니조, 김영민)는 오는 5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정신건강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과 집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인노인 및 부모를 돌보는 자녀분들을 위해 정신건강 및 치매를 주제로 열게 된다.

한인가정상담소 오미숙 임상심리상담 디렉터는 "2050년이 되면 노년층은 88백만5천여 명이 되며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된다.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된다"며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년층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들의 필요인 '어떻게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 그 일환으로 우울증, 치매 등에 대한 세미나"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정신과전문의 조만철 의학박사는 "노년층 중에 많이 생기는 질환 중 치매는 우울증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증과 치매 등은 뇌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인들의 정서상 노인들을 직접 돌보게 되는데 노인들이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롯 노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인가정상담소가 제공하는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4일 오전 9시 등록이 시작되며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신경과 의학박사 안필립 박사가 '뇌의 노화와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10시30분부터 50분까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조만철 박사가 '노인 정신건강의 이슈와 문제들', 알츠하이머협회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대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참가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며 미리 전화로 등록해야 한다.

▲문의: (213)389-6755, 제니퍼오 (213)235-4860

〈박준호 기자〉

쿠바한인 청소년 모국방문 초청경비마련

6월 20일 미주한인전국재단 주최 골프대회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이 주최하는 쿠바한인청소년 모국방문 초청경비마련 골프대회가 오는 6월 20일(목) 낮12시 샷건으로 로스앤젤레스 로스트 캐년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골프대회는 쿠바한인 후손가운데 청소년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그들의 뿌리교육과 함께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며 비전과 도전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우호 총회장은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을 맞아 불운했던 105년전 멕시코 이민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21년 노예와 같은 삶과 죽음의 길에서 288명이 쿠바로 재이민을 가서 정말 어렵고 혹독한 세월을 보내며 반세기 이상을 공산치하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보낸 우리의 혈육인 민족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라고 금번 행사의 동기를 밝혔다.

미주 각 지역대표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행사는 명실공히 전국골프대회로 더욱 의미가 있으며 임용근, 신호범, 김창준 의원이 명예대회장, 송정명 목사가 대회장으로 섬긴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주한인전국재단은 금번 행사 모금을 위해 한 회사당 100달러씩 기부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 소향식당, 성박사 스시, 맵시팻숀, K-Lee Seamless, Closeout-USA, Bagle Apparel, F&F, 마이애미역 패션빌리지, 생명나무 한의원, 노재승 회계사, 아담스 로펌이 후원하고 있다.

이 행사에 후원하실 분은 마이애미 본부 (305)576-9001, (305)572-9997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아멘넷 10주년 기념집회

인터넷 기독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 집사)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기념집회를 갖고 독자들을 초청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5월 30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만찬 후 7시30분부터) 에벤에셀선교교회(최창섭 목사, 이재홍 목사)에서 열리는 기념집회 강사는 박성일 목사(필라기쁨의교회),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노진산 목사(믿음으로사는교회). 또 아멘넷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에 대한 댓글 중 내용이 뛰어난 10명에게 "아빠의 선물"(저자 정정숙)을 증정한다.

▲문의: (917)684-0562 이메일: USAamen@gmail.com

YP3형제와 & 최명자 사모의 찬양콘서트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에서 기획하는 'YP3형제와 & 최명자 사모의 찬양 콘서트'가 6월 1일(토)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금은 크리스천문화센터 기금으로 조성된다. 티켓은 20달러이며 연락시 우편으로 우송한다.

▲문의: (646)258-4161, 이메일: usallm2020@gmail.com

뉴욕원로목사회 5월 월례예배 겸 회장취임축하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5월 월례예배 겸 회장취임축하예배가 5월 8일(수) 오전 11시 뉴욕제일감리교회(담임 지인식 목사)에서 열린다. 자동차 편이 없는 경우 오전 10시 156가 H-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밴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347)523-3681

"살맛나는 인생" 개최

한국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해피 인 지저스(살맛나는 인생)"가 5월 17일(금) 중부 뉴저지 찬양교회, 18일(토)에는 북부 뉴저지 하베스트교회에서 오후 7시30분 각각 열린다. 1부는 삶의 간증이 섞인 찬양 콘서트, 2부는 다함께 하는 찬양집회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다. 차량문의는 HINJ2012@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201)776-2484/박범 목사

뉴욕병원선교회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효도잔치가 5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선교회 후원도 받고 있다.

▲문의: (914)393-1450

7월 12-14일, 강사 양병희 목사, 콜든센터

2013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뉴욕교계 최대연합행사인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1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4일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렸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날 교협은 김수태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대회조직을 발표했다. 또 교협은 올해에는 예년의 4차례 기도회를 6차례로 늘려 기도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할렐루야대회 강사와 일정도 확정됐다.

△성인대회는 7월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3일간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열리며 집회시간은 금/토 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5시30분이다. 강사는 양병희 목사(서울영안교회)이며 15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목회자세미나도 열린다.

△어린이대회는 성인대회와 시간 장소가 동일하며 강사는 정승환 목사(퀸즈한인교회).

△청소년대회는 9월 6일(금)과 7일(토) 양일간 오후 7시부터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제이슨김 목사(산호세뉴비전교회)다.

이날 예배는 총무 현영갑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설교 김수태 목사, 통성기도, 광고,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유용진 목사 △뉴욕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박성원 목사 제목으로 기도한 후 이재덕 목사 인도로 대회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다. △성인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를 위해/이병홍 목사 △청소년대회와 어린이대회 강사를 위해/황영진 목사 △대회 준비위원들을 위해/이풍삼 목사 △대회참가와 날씨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황경일 목사 △대회 후원을 위해/지인식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한편 남은 5회 준비기도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차 5월13일(월)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3차 5월30일(목)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4차 6월10일(월) 은혜교회(이승재 목사) △5차 7월1일(월)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6차 7월8일(월) 선한목자교회(황영진 목사). 시간은 오전 10시30분.

〈유원정 기자〉

서임중 목사초청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차세대 지도자 양육위해 기도하고 있다"

뉴욕교협, 서임중 목사 초청 조찬간담회

2011년 뉴욕할렐루야 복음화대회 강사로 초빙됐던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 초청 조찬간담회가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주최로 지난 29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주로 증경회장들이 참석한 이날 총무 현영갑 목사의 사회로 양승호 목사의 기도 후 김종훈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서임중 목사 소개는 송병기 목사가 맡았다.

서임중 목사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강사로 초청됐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아직도 자격이 안됐던 자신을 초청해준 뉴욕교협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자신에 대한 두 가지 근황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부총회장(예장통합) 후보 출마와 둘째는 65세 은퇴설이라며 말씀사역과 교단장을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며 그러나 교단 일은 계속 지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65세 항존직 은퇴는 10년 전 장로들이 건의한 것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자신은 은퇴해도 교회법은 70세로 되돌려 놓으려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총회에서 모든 교회는 교단법에 따르라는 결정이 있어 결국 70세 은퇴가 결정됐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이행하고 다만 5년간 국내선교사로 파송 받아 작은 교회에 자비량 부흥사로 사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①존재 ②정돈 ③번영을 찾을 수 있다며 "세계의 중심 미국, 미국의 중심 뉴욕에 대형한인교회가 생겨 뉴욕교계와 한인사회에 다음세대 지도자를 양육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을 방문 중인 구순연 집사가 국악멜로디에 성경말씀을 담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 집사는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지난 15년 동안 6천여 회의 간증집회를 해오고 있다(www.ksy9191.com).

〈유원정 기자〉

씨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음전파, 천국확장에 노력하겠다'

기독미디어단체 씨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기독미디어단체 씨존 기독뉴스(www.kidoknews.net, 대표 문석진 목사) 창립 4주년 기념감사 예배가 지난 3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문석진 대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4년간 성장했다"며 "씨존은 크리스천의 C를 의미한다. 씨존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확장에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예배는 황영진 목사 사회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정권식 장로, 특송 새소망합창단, 설교 조정칠 목사("사훈", 막1:16-20), 영상사역보고, 인사 문석진 목사, 영상축사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김종훈 뉴욕교협 회장, 최예식 뉴욕목사회 회장, 박상천 뉴저지교협 회장, 이미선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김자송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 단장, 이정진 뉴욕밀알선교합창단 단장, 축사 김수태 목사 민승기 회장, 영상축시 곽상희 계관시인, 헌금기도 김종윤 목사, 헌금송 구순연 집사,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남 목사(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2부는 다큐영화 "중독"(감독 김상철 목사)을 상영하기로 했으나 편집이 끝나지 않아 김상철 감독이 영상으로 영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독"은 6월부터 뉴욕에서 순회 상영이 가능하다. 이날 오찬기도는 김영식 뉴욕교협 증경회장이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음악회에서 뉴욕남성목사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물질과 재능 기부한 성도들에 감사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찬양과 연주" 성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한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연주" 공연이 지난 28일 저녁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 음악회에 최근 결성된 뉴욕남성목사합창단(지휘 이다윗 목사)이 첫선을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공연은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선한목자교회), 설교 김해종 목사(증경회장), 인사말 김종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김종훈 목사는 "회원교회 중 미자립교회가 많다"며 "갈6:2(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의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마게도냐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뉴욕교협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물질로 재능으로 기부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모아진 헌금은 어려운 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주로 참가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 재능을 기부한 음악 전문가들은 이다윗, 유안나, 이광선, 손소혜, 신남섭, 최원희, 박에스더, 조애실, 정은진, 박선규, 이유진, 유요선, 김철호, 윤아영, 이성구, 안주랜, 조성식, 이정진, 랜드 브룩, 강충모, 뉴욕남성목사합창단, 뉴욕교협합창단 등이다.

특히 뮤지컬 히즈 라이프의 주인공 랜드 브룩이 찬양했으며, 강충모 교수(줄리아드음대 석좌교수)의 피아노 연주가 하이라이트를 차지했다.

이날 헌금기도는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가 했으며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순서를 모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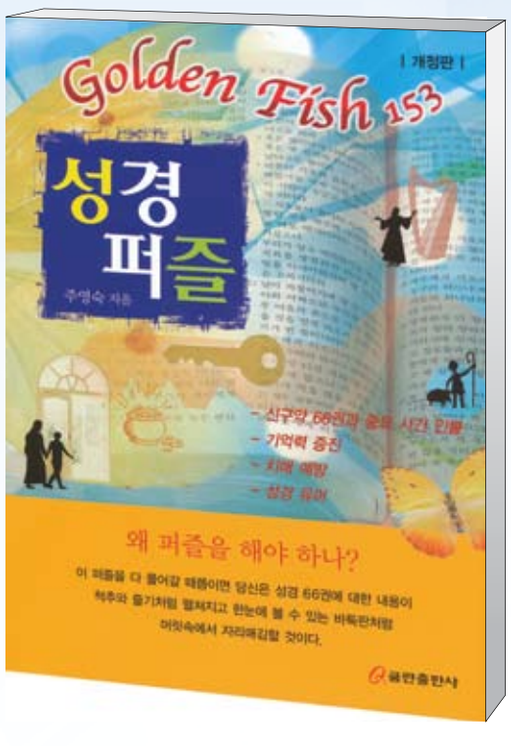
Golden Fish 153

한국 최초 성경퍼즐

신구약66권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사건, 내용, 인물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증진, 치매예방, 성경유머

이 퍼즐을 다 풀어 갈 때 쯤이면 당신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척추와 줄기처럼 펼쳐지고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바둑판처럼 머릿속에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책은 어린아이부터 어른 누구를 막론하고 쉽고 재미있게 성경의 줄기를 알아 가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재미있게 이어가다 보면 성경속의 모든 중요한 사건과 성경인물들을 다 만나 볼 수 있다.

각 장의 내용요약과 함께 그 장에 나오는 명칭 배경 저자 연도들을 간추려 내용윤곽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성경유머와 함께 지루하지 않도록 각 장을 풀어가도록 하였다.

우리의 머리도 두뇌운동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병이 들듯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다양한 메카니즘의 수 만큼이나 그 원인도 다양하다고 한다.
치매예방의 가장 좋은 약은 처방 화학약품이 아니라 퍼즐의 기호가 가진 낱말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그러다보면 두뇌회전이 되고 암기력이 생기며 사고하며 풀어감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뇌세포를 깨워 병들지 못하도록 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사람들은 퍼즐 책을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버리지 않고 버스안이나 공원에서 퍼즐을 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자기전 퍼즐을 풀고자는 것이
그 많은 하루일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지적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진다고 하지만
훈련에 따라서 천재의 기능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하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렸으면하는 바램이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저 자: 주 영 숙
E-Mail: goldenfish153ju@gmail.com
주문: (646)595-5125

※ 구입문의: 가격 $12.00 / 미국내 우송료는 Free
※ 교회, 단체 할인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통해 출발 남예모
5월말 예배사역 세미나 예정

남가주 예배인도자 모임(남예모, 대표 최재준 목사)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카페 세븐스 홈에서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남가주 예배인도자 모임(이하 남예모)을 통해 네트워을 가졌던 예배인도자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선교의 관계, 찬양 선곡에 대한 문제, 회중찬양의 편곡 방향성, 각자 사역지에서의 에피소드와 문제해결의 노하우 등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서로에게 도전과 위안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 예배인도자 모임이 Cafe seventh home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박윤선 목사(은혜한인교회), 박종술 목사(KCCC, 아름다운교회), 박갑수 목사(냉수한 그릇 밴드), 이요한 목사(감사한인교회), 최재준 목사(LA사랑의교회), 신동희 전도사(대흥장로교회), 김성아 전도사(Jesusholic Movement, KPLA)가 참석했다.

남예모는 1년여 전 최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그룹이 만들어졌고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인도자, 찬양사역자, 프로듀서, 지휘자와 연주자 등 예배에 쓰임 받는 자들의 정보교류와 친목의 장으로 이어져왔다.

박윤선 목사는 "지금까지 각 교회 예배인도자들의 연합의 친밀함과 사역으로써의 연결됨이 없었는데 남예모로 인해 예배인도자들의 네트웍이 이루어져 각 교회 간 예배인도와 찬양에 대해 나눔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이민교계에 많은 교회와 예배자들과 차세대 리더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예모는 이미 한국에서 예배사역 연구 분야에 인정을 받은 최지호 선교사(베네수엘라)를 주 강사로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를 5월말 경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한인교회, 디사이플스교회 등 여러 교회의 예배인도자들의 협력으로 열리게 되며 예배사역을 꿈꾸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인 KPLA(Korean Praise Leader Association)도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관할 예정이다.

▲문의: 남예모, 최재준 목사 (213)393-9559, KPLA 김성아 전도사 (213)880-3645

〈박준호 기자〉

두란노 세미나팀이 주최한 칭의와 성화 특강에서 김세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김세윤 박사초청 '칭의(稱義)와 성화(聖化) 세미나'
미주두란노세미나팀 주최, 법정적/관계론적 개념 정의

김세윤 박사(풀러신학교 교수) 초청 '칭의와 성화 세미나'가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두란노 세미나팀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바울의 칭의론과 성화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한국교회의 왜곡된 구원론을 바로잡기 위해 개최됐다.

22일 첫 번째 강의에서 김세윤 박사는 "칭의론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 범주로 해석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며 주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칭의)를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칭의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창조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어야 할 의무를 다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 세우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론적으로 이해되는 칭의론이 뜻하는 바를 바울은 성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두 해석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칭의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이된 것이다. 칭의는 의인으로 인정된 것이며 이 땅의 사람들을 선택해 하나님 노릇함을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즉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돌보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온피조물에 대한 언약의 특수판"이라 설명했다.

그는 "칭의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의지해 관계 회복되어 아담적 순명 극복한 것. 바울은 이를 성화라고 표현한다. 성화는 칭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백성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기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이어진 본 세미나는 교회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로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를 한층 느낄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에서 조용기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강사 조용기 목사, 55년 목회철학 설명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이 본 포럼 미주본부(회장 석종규 목사) 주최로 지난 17일 오전 7시 인터콘티넨털호텔 LA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찬특강은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서 55년 목회철학이 담긴 4차원 영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 지난 50년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4차원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원 영성의 힘은 생각, 꿈, 믿음, 말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변화된다. 성경말씀을 읽으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마음속의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해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우리의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축하조찬, 2부 감사예배로 열렸는데, 1부는 이양호 장로(해외본부장)의 사회로 시작,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조찬기도에 이어 조찬으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2부는 이종한 목사(미주본부 목회자포럼 회장)가 기도, 석종규 목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조용기 목사가 임명장 수여를 하고 특강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LACS, 베르디탄생200주년 기념음악회 성황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싱어스(LACS 단장 김철이)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지난 28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LA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의 Nabucco 서곡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클라라리, 클라라김, 박은미, 문혜원, 테너 소병헌, 바리톤 김철이, 베이스 류정상이 무대에 올라 베르디의 주옥같은 곡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

또 LACS와 스페셜 싱어들이 함께 LA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개선행진곡'과 '축제행진곡'을 불러 베르디탄생 200주년을 더욱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은혜 아니면'을 앙코르 곡으로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LACS주최 베르디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세계의료선교회 지역사회 건강검진
세계의료선교회(대표 김인철 목사)는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그라나다힐스에 위치한 밸리한국장로교회(16603 San Fernando Mission Bl)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 한방, 안경수리 등의 진료가 이뤄지며 유방암 검진의 경우 예약환자만 검진한다.
▲문의: (818)621-4256

가정선교세미나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 목사)는 5월 25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제4기 가정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리는 이 세미나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독교적 관점들을 나누게 된다.
▲문의: (562)714-0691

생명시내교회 주일영어교실 실시
LA지역 생명시내교회(3669 W 6th St, LA)에서 주일영어교실을 실시한다. 매주 주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되는 영어교실은 영어를 배우고 싶지만 주중에 일을 하거나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310)999-5584

온누리소망교회 설립기념예배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묘숙 목사, 1741 S.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설립기념예배가 5월 5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626)445-7076

장학생 선발 신청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풀타임 학생이며 세례 받은 기독교인에 한한다. 장학금 종류는 △일반장학금-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이거나 입학예정자. 신청마감일은 6월 29일까지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장학신청서 1부(인랜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 1부, 2012년 세금보고서, 에세이(레터용지 1장), 다민족 장학금 신청서는 포모나 시장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추천서 1부 등이다.
▲문의: (909)622-2324

나성소망교회 제1회 어린이 찬양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는 월드비전 후원으로 제1회 어린이 찬양제를 5월 5일(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윌셔팍 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550-7377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샬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한국교회, 아베총리 일제침략부인 발언 규탄

"日, 과거사 사죄 없이…우상숭배 민족 꼭 망해"

한국교회는 2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제침략 부인 발언과 의원 168명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군국주의 회귀'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아베 총리의 망언 등은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도발 행위"라며 "한기총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위안부(성노예) 문제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참회를 촉구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내 "피해를 당한 이웃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식민지배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스쿠니신사 참배 같은 치졸한 우경화 정책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침으로써 주변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으려면 정치적 술수와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국장 심만섭 목사는 "일본 지도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는 국가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진정한 역사적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한국교회는 일제의 만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동북아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도해왔다"면서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죄하고 군국주의 대국화의 야욕을 포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와 정부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인 이덕주 감신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미성숙하고 편협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기독 사학자들은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내 양심적 평화세력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경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0년째 매주 기도회를 열고 있는 박세환 국토수호교회 목사는 이날도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패망한 뒤 맥아더 장군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시켰는데,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를 시작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줄줄이 참배하면서 전쟁과 영토침탈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신사 참배를 중단하고 역사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기도회를 열고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재발 대비

교계, 법률지원단 구성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종파를 초월, 다른 종교 및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완전 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대위에는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비대위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 폐기 여부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망이 달려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일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이날 10여명의 법조인들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 단장에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헌신예배를 드리고 16개 광역 시·도에 회장단을 위촉할 계획이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세간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하거나 침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이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성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한 의원들도 성적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 독소조항의 후유증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출산·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국YMCA, 37년 만에 '목적문' 바꾼다

'예수 · 하나님' 첫 명시, 더 기독교적으로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이사장 안재웅 목사)이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Y 목적문'을 바꾼다. 1976년 처음 제정한 이래 37년 만이다. 목적문이란 조직이나 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용 및 비전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명 실천문'이다.

한국Y는 25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목적과사업협의회를 열어 '한국Y의 목적문 개정안(표참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한국Y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최종 완성문으로 발표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수'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시가 됐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Y의 목적문에는 예수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대신 '하느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 작업을 총괄한 한국Y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Y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라는 문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에 따라'라는 문구로 한층 구체화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목적문에 표기된 '하느님' 문구와 '하나님'을 병행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개신교인 다수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러나 한국Y의 활동 영역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까지 포용하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행 목적문이 작성될 당시에는 공동번역 성서가 출판된 데다 가톨릭교회와 관계를 고려해 '하느님'으로 표기됐다.

개정안은 또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우르는 '역사적 책임의식'이라는 문구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밖에 '사랑' '민중의 복지' 등의 단어 및 문구는 한국Y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세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들을 조합한 용어로 대체됐다. 바로 '참여' '협동' '연대' '평화' 등의 단어들이다.

안재웅 한국Y 전국연맹 이사장은 "날로 급변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Y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라며 "기본적으로 파리선언의 신학적 틀 안에서 한국Y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목적문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한국YMCA100주년기념사업회 1차 운영위에서는 내년 4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 한국Y 100주년 기념사업계획안이 마련됐다.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주제성구 이사야 65:17)'을 슬로건으로 내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기념사업회에는 안 이사장을 비롯해 서광선 세계Y연맹 전 회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6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기념행사는 내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철원 DMZ(비무장지대)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100주년 기념예배와 국제 심포지엄, 한국시민사회 100년 박람회 등이 준비된다. 이밖에 청소년 DMZ 평화순례와 아시아 생명평화센터 건립, 한국YMCA 100년사 발간 등의 중·장기 사업도 차례로 추진된다.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 발표

소강석, 오범열, 김일 목사, 박흥일 장로

성령 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 수상자가 목회자·부흥사·세계선교·교계연합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삼환 목사)는 27일 목회자 부문에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부흥사 부문에 오범열(안양성산교회) 목사, 교계연합 부문에 박흥일(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 장로, 세계선교 부문에 김일(후쿠오카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소 목사는 해마다 미국 등 해외의 6·25 참전용사를 초청, 민간외교 사역을 했고 다방면에 걸쳐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펼쳐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한 공로가 인정됐다. 오 목사는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한 부흥설교로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고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표회장으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을 인정받았다.

박 장로는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직장인의 복음 생활화를 통한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을 통한 교회 일치를 추구한 공로가 인정됐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더린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철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718)359-7883, 직통.(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른예배: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정오 12:00
5부열린예배: 오후 1:30
6부 BM&EM: 오후 3:00
7부늦은예배: 저녁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아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세계 종교문화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보스턴 테러 동기 분석

보스턴 테러범: 한국 이민사와 유사한 점

보스턴 테러범의 부모는 잘 알려진 것처럼 체첸 출신(고국)이다. 2차 대전 직전, 스탈린은 체첸 무슬림들이 히틀러에 협조할까 두려워 체첸인들을 키르키즈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마치 우스르스크나 하바로스크 고려인들이 일본군에 협조할까 두려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과 유사하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된 체첸인 중 생존자는 30%에 불과했다.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서 많은 수가 죽음을 맞이했다. 키르키즈스탄의 한 고려인 할머니에 의하면 러시아 열차가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허허벌판에 내려놓자 남자들이 원을 만들어 그 안에 노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하는 것이나 체첸인들이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이 참으로 유사하다. 보스턴 테러범의 아버지도 노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로 시간당 10달러를 버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나마 일구지 않으면 이민자 2세들의 삶도 매일반이기 때문이다.

테러동기: 이슬람적 고독인가? 이슬람적 지하드인가?

몇년전 코리언 아메리칸이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사살을 자행하였다. 그의 살인동기에 대해서도 이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여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동기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판은 보스턴 테러에 대한 동기를 "안방에서 자란 이슬람적 고독" 혹은 "이슬람 지하드" 중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민자가 미국의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고독감으로 고민하였거나 아니면 이슬람 지하디스트로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언론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 자생적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두 형제는 이민자 후손으로 자생적 테러범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생적 테러가 있었다. 미국 언론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한 해설가는 이들의 테러 동기를 "충성심의 갈등"으로 해석한다. 미국의 많은 무슬림들은 "미국 시민이 먼저인가?" 혹은 "무슬림이 먼저인가?"라는 정체성 갈등에서 후자를 택한다(Scott Shane, "To Suspects in Boston, home was elusive id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onday, April 22, 2013: 1 and 4). 실제 보스턴 테러의 용의자 조하르도 3년 전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조국인 체첸의 뿌리를 알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체첸인들은 인구의 30%가 중앙아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족이다. 90년대 이후 러시아로부터 독립투쟁을 하는 가운데 100만명 인구 2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등 비운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추측하는 테러범죄 동기는 조국, 이데올로기, 종교, 인간성 등 혼합적이다. 이들의 정체성 갈등에 대하여 워싱톤대학 이슬람 연구소 교수 아크바 아흐메드는 "이들은 미국인이지만 진정한 미국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저서 The Thistle and the Drone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부족적 이슬람주의와의 전쟁"으로 표현한다. 지하디스트의 부족적 코드는 친절, 용기 및 복수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반응을 형성한다고 한다. 형 타머란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고 아내 카데린 러셀의 경우 크리스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한다.

Leo Braudy는 저서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From Chivarly to Terrorism)에서 현대 하이테크도 원시무기를 소지한 무장한 적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Stephen L. Carter는 테러를 극장에서 연출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국의 WND라는 웹사이트가 북한을 테러로 배후로 지목하자 이에 대해 북한중앙통신은 북한은 테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로서 절대 테러를 조종하지 않는다며 비난으로 응수했다.

왜 미국인가?

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테러하였나?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체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미국 내 활동하는 체첸 출신 테러혐의자들의 명단을 러시아에 넘김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한 것에 분개한 것이다. 조국애(Amor Patri) 감정의 분출이라고나 할까?

최대 피해자는 무슬림들

4월 25일 미국 CNN은 금번 보스턴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라며 파키스탄계 미국인 의사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마치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확산되는 이슬람 공포증을 우려했다.

투고칼럼

그리운 어머니께 드립니다

최낙일 목사
(동부장로교회 교회)

어머니! 1950년 11월 28일 6.25 전쟁이 일어나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 저의 나이 겨우 21살! 철없는 농촌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쌀 두말을 등에 지워주시면서 "부디 몸조심하고 잠시 남쪽에 갔다 오너라" 하시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서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 나이 84세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 동생 낙현이도 잘들 계신지요?

어머니! 저도 요사이 노인병이 들었는지 1주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어제 퇴원하고 보니 새삼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1시30분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펜을 들었네요.

병원에 입원 해 보니 제 처가 잘 해주고 고마웠지만 새삼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어머니! 이 둘째아들 낙일에게 크나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병이나 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 둘째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나이가 들고 보니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한스럽고.... 이제 어머니를 만난다면 일등 가는 효도를 하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때 집을 떠나 잠시 다녀온다고 했던 것이 남으로남으로 가다보니 안주, 평양, 개성을 지나 38선을 넘어 서울, 인천, 제주도 거기서 또 부산으로, 서울로 와서 결혼하고 50년을 살면서 5남매를 낳았고 5남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 외손주를 두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은 미국 LA로 이민 와서 잘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둘째 며느리는 서울사람인데 착하고 예쁜 여자랍니다. 어머니께서 보신다면 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머니! 제가 18세가 되었을 때 동네에 있는 회당(교회)에 나갈 때 어머니는 용납하셨으나 아버지는 많은 핍박을 하셨지요. 어느 날 가을 해가 질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함께 셋이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 깎는 칼을 드시면서 "낙일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 칼에 찔러 죽겠다. 나는 회당도 보기 싫어서 그 앞을 지나가야 할 때도 예수가 싫어서 먼데로 돌아서 간다"고 노기에 찬 언사로 칼을 드셨을 때 어머니는 "여보 왜 이러세요" 하시면서 칼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방에서 나와 회당(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감화를 받으셨는지 성탄절이 되었는데 회당(교회)에 나오셔서 구경을 하셨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많은 복을 받았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공산국가가 북한에서 나오지 않았을런 지도 모릅니다. 아니 못 나왔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1년에 4번씩 하는 제사 때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무덤을 타 지방으로 이장할 때 셋째 외삼촌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지요

무덤에서 파 온 뼈를 저에게 지고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주일이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화장실에 숨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나를 찾다가 너무 시간이 흘러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셨지요 제가 저녁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 외삼촌은 저를 보시고는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낙일아! 너는 돌 잠에서 나왔느냐? 부모도 없느냐?"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지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모심기 할 때라서 주일날 모두 논으로 나가는데 나는 주일이라 안 나가려고 했지만 형님의 강권과 야단이 무서워서 울면서 아침밥을 먹지도 않고 주일날 모심기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논에서 묘를 한 폭, 한 폭 심어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픈 것도 잊은 채.... 그때도 어머니는 저의 편을 들어주셨지요. 울면서 일 하러 나갔던 것을 어머니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믿음을 지킨 것이 남한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도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이곳 남한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도 했으니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 하셨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잘 잡숫지도 못하시고 늙은 몸으로 농촌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제가 북에 있을 그때도 2,000평 논에 물을 양수기로 푸곤 하였는데 남한에 피난와서도 여러 해 동안 무척이나 걱정이 되어 자면서 꿈에서도 논에 물 대는 꿈을 꾸며 애를 쓰곤 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잘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섯 살 났을 때 조죽, 강냉이죽을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8월 10일인데 말복 때라서 농촌에서는 쌀이 떨어지는(보릿고개) 때라 쌀이 있는 집은 부자집이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쌀 바구니를 들고 우리집 앞산 밑에 있는 부자집 방씨 집에서 쌀을 꾸어다가 담 밑에 달린 호박을 따서 맛있게 호박찌개에 쌀밥을 지어 생일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마을의 자랑인 냉천우물물을 길어다가 오이냉국을 만들어서 먹던 때를 생각하니 새삼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돌아오시면 술주정을 받으시고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절대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어머니의 손자손녀들을 안아보시고 60년간 떨어져있던 아들 낙일이를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둘째 며느리가 만든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북의 공산주의를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부디부디 몸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2013년 5월
둘째아들 낙일 올림
trrtie@naver,com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여행의 목적 달성하기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내 삶에 초청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살고 계신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가는 티켓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티켓 준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티켓을 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했다면 이 시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갈 티켓을 선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을 읽은 독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소감을 써 놓은 걸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모리 교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 여행을 할 때 어떤 짐을 챙겨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그가 가야할 목적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짐도 없었습니다.

모리 교수에게 물었던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다음 목적지에 가기 위해 티켓을 챙겨야 합니다.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

여행 후 결산하기

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평가합니다. 계획한대로 예산이 잘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나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적을 다 달성한 여행이었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 결산의 내용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고 왔는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행 경비를 여행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왔는지 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종들과 그렇지 못한 종을 불러놓고 주인이 결산을 했습니다.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흙 묻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밀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쓴 경비는 본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입니다. 일차적으로 가족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만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일만을 위해 평생 동안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내가 가진 모두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플러스로서 하늘에 쌓아지게 하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과 함께 칭찬을 하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잔치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선교 편지

한국 노숙자선교

꿈이 이루어지는 곳…드림씨티입니다.

2년전 1층에서 시작된 드림씨티. 2년 동안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무료병원(진료소-의원)과 함께 미술지도 그리고 매주 찬양집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이루어 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아름다운 세상…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우심 가운데 이루지고 있음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노숙인 실태

한국의 노숙인의 수는 14,000명 전국민 대비 0.03%정도로 미국의 3백만명(국민의 1%)에 비하면 아직 극히 적은 숫자지만 조만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실제 노숙인 수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가 외면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차갑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거나, 굶기면 일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방치할 경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범죄나 질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들을 적정한 선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전화를 하는 사람 가운데 당장 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먹고 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봅니다. 마땅한 지원이 없을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OECD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어쩌면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사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세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며 이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드림씨티에선

드림씨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낮에는 400-500명에 이르며 야간에는 40명 정도입니다. 잠자리와 함께 전화, 팩스, 세탁, 이발, 컴퓨터(인터넷), 한방/양방진료, 영화, 물품보관,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이들이 재활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40명에게 제공되는 잠자리는 신분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간식과 식사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돕고 있는데 오랜 기간의 음주로 인한 당뇨나 혈압, 그리고 우울증들이 치료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어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씨티의 사역이 늘어나며 새롭게 나타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리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찾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도움을 주는 일… 드림씨티의 소망입니다.

기도제목

1. 드림씨티의 사역을 통하여 노숙인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히 무료병원에 뜻을 가진 분이 연결되고 그 일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드림씨티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생활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드림씨티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여러 사역을 위해 헌신할 좋은 분들이 연결되어 더 낮은 곳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물질적인 도움이 잘 연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웹사이트: www.dreamcity.or.kr

우연식 선교사 드림

케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와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안부 드립니다.세월은 너무 빨라서 벌써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곳 버팔로의 겨울은 참으로 길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왔고 나무들도 꽃봉우리가 생기고, 나무 잎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노오란 개나리가 여기 저기 저희를 반겨줍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봄처럼 따스한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식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교지로 돌아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남은 얼마동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단단히 훈련하고 가야겠습니다.

케냐소식

케냐는 지난 3월 5일 제4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케냐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아들인 우후루 케냐타와 국무총리를 지낸 라일라 오딩가와의 접전을 벌였으나 선거 결과 우후루 케냐타가 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지난 3월 26일 취임식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라일라 오딩가 씨는 대선결과 불복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3월 30일 오후 5시 케냐 대법원은 우후루 케냐타가 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판결하여 4월9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이후 부활절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타운 밖으로 나갈 것이어서, 판결결과에 따라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지난 2007년 총선 후와 같은 폭력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케냐가 계속 안정적이어서 선교하는데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소식

마싱가신학교는 지난 3월16일 제21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일반과정에서 2명 그리고 특별과정에서7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2008년 처음 학교에 부임하여 1학년으로 입학하여 공부하던 학생들이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과정 학생들이야 이미 목회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염려는 되지 않지만 일반과정 학생들은 나이도 어리고 목회의 경험들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졸업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2주간 특별과정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일반과정 2명, 특별과정 2명이 정학이 되었고, 아직 교장이 없어 그 자리가 공석입니다. 신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미전도 종족에게도 선교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마싱가 신학교를 위해 –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 내도록, 신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을 위해서
- 진행 중인 유치원, 유치원 교사대학, 현지인선교사 훈련대학이 준비가 잘되어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 원활한 사역을 위한 4륜구동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게 될 인혜, 지혜, 미혜를 위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들 에녹이를 위해
- 가족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헌애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헌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후 2:00
찬 양 예 배: 오후 3:30
새벽예배:오전 6:00(화-토)
Tel.(213)413-1600, (F)(213)383-2604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213)383-2600,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11:00
주일3부예배:오전 10:50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금)
Tel.(818)363-5887, Fax.(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3)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번에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통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녀들의 성숙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자산들에 대한 것 중 "열심과 열정의 예배"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은 "열심과 열정의 선교(전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늘 선교와 전도를 그 사역에 최우선에 두고 열심을 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현재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숫자적 통계로 볼 때도 미국교회에 이어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도 모국교회의 이러한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그 정신과 실천 모두를 받아 안고 선교 및 전도 사역에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수한 심령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헌금(기금마련 실천들 포함)과 기도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해왔으며, 많은 교회들이(한국교회, 한인교회 공히)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기획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만의 신앙전통인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만 봐도 그 절대적 숫자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그리고 사실 한국교회 자체도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았을 만큼) 미국교회도 선교와 전도에 많은 초점을 두어 온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미국 땅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은 굳이 신앙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미국사회 속에 있는 미국교회들로부터 충분히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선교에의 열정과 열심"은 한국민족 신앙공동체만의 전통이며 긍정적 자산이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전수 교육은 가치를 지니며 고로 당위를 가진다 말하기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교회의 선교사역과 우리 한국, 한인 교회의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교회들의 선교 사역들에는 우리 민족의 선교사역들을 성격 짓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순수한 열심과 열정"이라는 "Spirit"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안타깝게도 미국교회의 선교사역은 제국주의 및 식민지주의와 그 행보를 같이 하면서 역사가들과 다른 나라의 교회들로부터 그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왜곡된 열정이라 평해지기도 했으며 역사적 악제를 암암리에 비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한인 교회의 그것과는 달리 현재 미국교회들의 선교사역은 이미 명목만 남고 실천에 대한 열정은 사라진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 복음주의 계통의 교단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의 경우, 미국 사회 문화 전반의 세속화와 개별교회들의 쇠퇴라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교인들을 유지하는 쪽, 즉 내실을 기하는 사역이 우선시 되었고, 교회 밖의 영역인 선교나 전도는 여력이 없는 탓인지 사역의 우선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spirit 없이 명목만 남은 미국교회의 선교사역과는 달리, 우리 교회의 "순수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선교 사역"은—특히 그것이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사역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우리 민족 신앙공동체를 성격 짓는 신앙전통이며,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한국교회의 신앙적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전수교육은 가치를 지니며 고로 당위를 가진다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론을 고민 계발하면서, 이러한 자산을 전수하는 교육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진함에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성실한 전통전수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비전을 잘 내면화 시켜준다면 이는 실제 선교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한인자녀들이 소중한 선교적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중언어자들이며 이중 문화자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해 온전히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는 우리 한인 어른들이 무던히 노력해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감함, 그리고 열린 마음(appreciation, sensitivity, and openness to cultural diversity)"을 우리 자녀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감성, 그리고 열린 마음(appreciation, sensitivity, and openness to cultural diversity)"은 어떤 형태이든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의 중요성은 21세기 미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더욱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대상자들이 더 이상 먼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들로부터 온 선교 대상자들이 무수히 많은, 그러한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우리 한인교회의 선교사역도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사역도 진지하고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덕목을 이미 내면화하고 있으며, 그래서 새시대 선교의 역군으로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한인자녀들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고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사역자들은 한국 전통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 그 정신과 실천들을 성심으로 전수해서 우리 한인자녀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키워주고,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그 시너지를 실제 선교의 현장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계속〉

한인 2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감함 열린 마음 이미 소유
우리 주변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로부터 온 선교대상자 무수히 많아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세상을 본받지 말라(신12:20-32)찬송238장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모세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롬12:1-2). 첫째,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먹되 피는 땅에 쏟으라고 함은 건강 목적이 아니고 영적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골2:16, 히9:10). 생명의 주만을 의지하고, 항상 존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생명(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 곧, 영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수와 복의 원천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바치는 길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사도의 가르침의 구약적 표현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을 따릅시다.

화 거룩한 삶(신14:1-21)찬송194장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특권을 받은 것만큼 순종해야 할 의무가 따랐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의 공도를 온 땅에 전하는 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있어서 진실과 의로움을 익히는 구별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첫째, 몸치장에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몸을 베는 것과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미는 행위를 금하심으로 이방인과 구분하는 몸의 거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1). 둘째, 음식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새김질하지 않거나 쪽발 갈라진 것 민물고기를 금하셨고 지느러미와 비늘있는 것을 허락하나 사나운 짐승의 고기나 엉거주춤한 생태의 날며 기는 짐승 고기, 염소새끼와 그 어미의 젖을 같이 삼는 것을 금하심으로 혼합주의를 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의 차원을 늘 잊지 맙시다.

수 십일조생활의 목적(신14:22-29)찬71장

범사에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은 현실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름으로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불로소득을 금하고 자기의 진실의 수고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10조(회식, 레위인 생계, 구제)를 주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십일조를 드림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배양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으로 작은 일부터 말씀을 따라 성실히 순종함으로써 조금씩 배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십일조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마23:23) 복음 안에 꽃을 피우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룸으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합니다. 물질 문제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쉽게 빠진 자가 되기 때문 입니다.

목 은혜 유지하는 길(신17:14-20)찬498장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겸손의 마음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왕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속하려면 세가지 즉, 병기, 여색 그리고 재물축적을 경계해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경외 신앙을 지킴으로서 항상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항상 읽으며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할 때만 겸손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착념치 않는 자는 저절로 부패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 착념할 것을 가르칩니다(딤전6:3-4).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겸손의 마음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겸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시다.

금 레위인의 특권(신18:1-8)찬361장

제사장 직무가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예배의 중책이기에 하나님은 그들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제사드린 후, 남은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이었고(3) 처음 익은 것들은 모두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4).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택한 곳에서 제사하는 일만 종사하게 하셨습니다(6-7). 특권은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소홀히 여길 때 여지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영역에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이것을 위할 때 모든 의식주 문제를 보장하셨습니다(마6:33). 복음의 제사장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 역시 이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제사장으로 삽시다(마6:33).

토 그 선지자(신18:9-22)찬267장

가나안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계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혼잡케하는 수많은 복술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그리고 초혼자들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10). 교훈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분명한 계시자를 보여주시면서 장차 나타날 그 선지자의 말만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15,18,19).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절대 선지자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증거대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으로서(요1:21-22, 행3:22-23) 신구약시대 누구든지 그의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시대보다 더 복된 시대에 사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성령 안에서 완성하시는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이신 예수의 복음에 착념합시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인/터/뷰 김성길 목사 (시은소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주강사로 단에선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는 교회론 강의와 영성회를 통한 간증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안겼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시73:28). 김 목사에게 사역에 대해 묻자 먼저 성경말씀을 제시하며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김성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교계에 대한 비전과 목회철학을 들어 본다.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령충만 받도록
한국 교계선교, 문제보다 긍정적 요소 많아 · '교회세습' 단어 비성경적

6대째 믿음의 가문 이어가

4대 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 지금 6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김성길 목사. 현재 신도시 광교에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다. 성도 1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에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흥의 기로를 달리고 있는 시은소교회는 오는 6월 9일이면 설립38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을 맞던 1945년 목사님이시던 할아버지는 시국이 뒤숭숭한 것을 직감하고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손자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6살의 어린 김성길을 평안남도에서 목회를 하던 고모할머니에게 보내졌다. 일주일만 지내고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6.25전쟁이 터졌고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지금까지 고향을 가보지 못하고 가족들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

고아가 된 김 목사는 대구와 경북에 있는 보육원 3곳을 돌아다니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했다. 다행인 것은 그 보육원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고 성경말씀을 한 구절씩 외워야 했다. 그는 성경속의 요셉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14년을 그곳에서 지내며 외운 구절이 3천 구절이나 됐다. 그러고 보니 6.25를 일으킨 김일성은 원수이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요셉의 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고 웃는다.

1965년 담임전도사로 목회 시작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1965년 대구 평리동에서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김성길 목사는 성역 50년을 바라보고 있다. 김 목사의 목회철학이나 개인철학은 성경처럼, 칼빈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로 이것이 목회의 모토이자 철학이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전통적인 목회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목회가 제일이지요. 교인들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 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겸손히 말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온 까닭인지 김 목사의 아들 넷 중 세 명이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 김성길 목사의 첫째 아들은 미국과 캐나다, 런던에서 공부하고 현재 시은소교회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둘째 아들은 미국 열방대학 코스를 밟고 있으며 일본 선교팀을 이끌고 곧 선교현장에 파송될 것이라고. 셋째 아들 역시 서울 사랑의 교회 교구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계와 선교, 문제보다 긍정적 요소 많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지라도 사람을 통해 그의 나라 세우고 사람을 세우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교회 밖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교회가 저렇게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이 안보여 기고만장해지고 그러다보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미국교회가 또 300년 동안 순수하게 잘 성장하고 세계 복음화와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오다가 이제 침체국면에 들어서서 동성애를 막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인구가 가장 밀집된 아시아를 주목하신 줄 압니다. 이제는 경제 정치인들도 아시아 중시정책 쓰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교회도 부흥됐습니다. 그 중에 한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고속성장을 이루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GNP도 높고 G-20에도 들어가는 복을 얻었지요. 조금 침체한다는 말이 있지만 전 아직까지는 침체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안티세력들이 기독교의 힘을 빼려고 기독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교회가 1,100여개가 있는데 그런 중에 수원시에서 적어도 출석이 2000여명 되는 10여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숫자가 줄은 적이 없고 우리교회는 300% 정도가 성장됐습니다. 그외 대표적인 교회는 최대한 3배 이상 부흥한 것으로 알려지지요. 서울에 있는 금란교회는 봄가을로 세례를 주는데 적을 때 천명, 많을 때 천오백명정도가 세례받고 정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3천개 개척교회가 사라지고 1천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 목사가 속한 교단(예장합동)에 교회가 약 13,000교회라고 하는데 언론에 오르내리는 숫자는 불과 극소수라는 것.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대다수이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김 목사의 의견이다.

'교회세습' 단어 비성경적

또한 "요즘 교회세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지 않지요. 한국의 분위기는 큰 교회만 세습이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규칙도 안 맞지요. 큰 교회란 건강한 교회지요. 모두가 속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리드하려면 큰 교회를 인식해야 하고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 훈련받고 투자했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교회를 와해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고자 하시지요. 공동의회를 거쳐 세례교인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허락됩니다. 한국의 500여 교회가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데 한 두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김성길 목사는 한국교회나 선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말한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되기를

성도들에게 지면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기도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보면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고 그 스승이 지도하는 대로 살면 능력이 발휘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고 나아가 복지, 교육, 사회문화 창출, 선교 등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힘 있게 말했다.

바쁜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앞서 한국으로 출발한 김성길 목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의 강의에 도전도 받았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자 기자〉

새 책 소 개

"고통이여 너를 안는다"

저자 곽상희 권사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미스교회)의 시집 "고통이여 너를 안는다"가 문학의전당사에서 최근 출간됐다.

"비밀 하나 캐려고 텃밭으로 갔다. 그러나 그것이 사막이 되고 바다가 될 줄 몰랐다. 닫힌 문이 될 줄 몰랐다. 문 밖에서 말을 캐는 일을 익혔다./그렇게 사랑이 오고 말이 왔다. 바람이 익은 물빛 안에서." 시집 맨 앞에 삽입된 저자의 말이다.

해설을 맡은 중앙대 교수 이승하 시인은 곽상희 권사를 "재미시인으로서 한국내 문단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인"이라며 곽 시인의 시집은 '시 자체, 시인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감수성과 감정이 풍부한

시 자체, 시인 그 자체의 시집

시인임을 확신했다.

이어서 "길을 가다가" 앞 2연, "공해" 마지막 연, "나팔꽃 향수" 제4연, "꽃잎 하나에도" 마지막 연을 소개하며 세상의 모든 새는 울고 있고 그 새들의 소리를 듣는 시인의 마음도 울고 있다며 생명가진 것들의 슬픔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썼다.

또 동정심과 연민의 정, 슬픔 뒤에 기쁨, 그리움 등을 표현한 싯귀들을 소개하며 세상의 수많은 비극적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찾아 떠나는 단테에 비교했다.

본 시집의 제목을 따온 "시"라는 제목의 시는, 시를 쓰면 어떤 고통도 잊게 되지만 시를 쓰기는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승하 교수는 "시인 되기란 가혹하고 힘들지만 시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또 산 주검이며 죽은 생명"이라면서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우는" 시 쓰기에 대해 "고통이 녹아져/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내 안에서"라는 곽상희 시인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시집은 1부 장미꽃 속에 숨은 시간, 2부 맨발로 쓰는 시, 3부 꽃잎 하나에도, 4부 꽃이 모국어로 말한다 주제 하에 총 67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곽상희 시인은 서울 문리대 졸업, 오하이오대 에드가에벌스대 뱅크스트릿드대학원 수학. 198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다수의 시집, 수필집, 장편소설 등을 펴냈다. Olympoetry 시인 Poet Laureate로 선정, 영국백과사전 국제시인상, 제 1회 박남수문학상, 제 1회 미주시의회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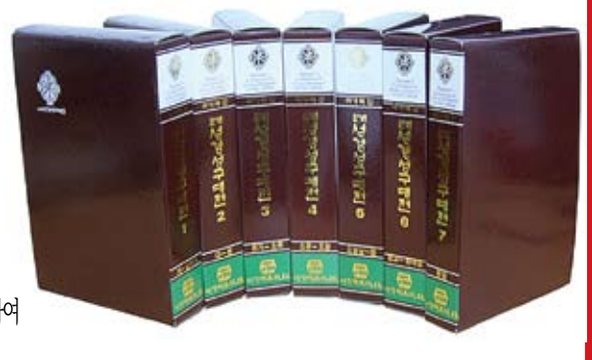
총 147페이지, 미주내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이메일: sangheekw@yahoo.com

〈유원정 기자〉

JoyLA.com
sale
주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가페 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닙하스
2권:다~못
3권: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힛데겔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있도록 제작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o 크로스웨이 1권~5권
o 크로스웨이 사례집
o 크로스웨이 오디오CD
o 크로스웨이 수료증
o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